

차운시(次韻詩)에 드러난 지식 활용의 제 양상*

- 행원(杏園) 최동립(崔東立)의 차운시 작시 양상을
중심으로

김 묘 정**

차 례

- | | |
|---------------------------------|--------------------------------------|
| 1. 머리말 | 2) 지식 교류 측면에서의 동일 소재
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 |
| 2. 행원의 삶과 차운시 개관 및 지식
활용의 의미 | 3) 즉흥적 지식 공유를 통한 실시간
소통 |
| 3. 행원의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
용 양상 | 4. 맺음말 |
| 1) 학시 과정으로서의 차운과 지식
습득 | |

국문초록

이 글은 杏園 崔東立(1557~1611)의 次韻詩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지식은 문학 작품 창작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특히 한시 가운데 차운시는 지식 원천 활용의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가 있다. 차운시는 원운시의 운자에 차운하는 방식으로 작시되므로, 지식의 원천에 해당하는 원운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창작된다. 따라서 이 글은 차운시 작시 방식 분석을 통해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구성된 것이다.

이에 2장에서는 행원의 삶과 차운시를 개관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운시에서 확인되는 지식의 층위를 나눠 지식 활용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행원의 삶과 문집에 대한 소개가 학계에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기초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한 것이다. 나아가 차운시가 지식 활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식 활용 양상의 전체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행원의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살펴본 양상은 학시 과정으로서의 차운과 지식 습득 면모이다. 행원의 차운시는 전 문집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으며 중국 작가의 작품을 학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두 번째는 지식 교류 측면에서의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는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이 지식 교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준다. 세 번째는 즉흥적 지식 공유를 통한 실시간 소통 양상을 살폈다. 여기에서는 차운시 창작이 원운시의 운자를 활용해 즉시 때에 맞춰 이뤄짐을 확인하고, 차운시가 즉흥적 지식 공유와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르임을 밝혔다.

주제어 : 지식, 차운시, 행원 최동립, 소북, 소북칠학사

1. 머리말

이 글은 杏園 崔東立(1557~1611)의 次韻詩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살피고자 기획된 것이다. 지

식은 문학 작품 창작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특히 한시 가운데 차운시는 지식 원천 활용의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운시는 원운시의 운자에 차운하는 방식으로 작시되므로, 지식의 원천에 해당하는 원운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창작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차운시 작시 방식 분석을 통해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次韻詩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주로 문인 개인의 시세계 전체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시세계 양상의 일부로 차운시가 연구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차운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交遊詩와 燕行詩 등을 다루면서 차운시를 일부 활용해 교유 양상을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차운시를 집중 조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차운시의 효과와 특성을 밝힌 연구¹⁾, 원운시 문인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차운시를 다룬 경우²⁾, 시적 소통 양상을 규명한 연구³⁾, 차운시의 풍격을 다룬 연구⁴⁾, 작법 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⁵⁾ 등이 있다. 그러나 차운시라는 작품의 특성을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한 연구는 차운시가 지니는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⁶⁾ 이에 이 글에서는

-
- 1) 김보경, 『시가 창작에 있어서 차운의 효과와 의의에 대하여 -蘇軾의 詩歌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45, 중국어문연구회, 2010, 45-70쪽; 강민호, 『압운의 미학으로 본 차운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2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49-71쪽.
 - 2) 한해철, 『권필 製述官 시기의 차운시 연구 明使와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233-278쪽.
 - 3) 윤재환, 『退溪의 次韻詩에 나타난 詩的 疏通의 樣相』,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219-247쪽.
 - 4) 양훈식, 『창랑 성문준의 차운시에 나타난 풍격 연구』, 『어문연구』 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345-374쪽.
 - 5) 노현정, 『觀復菴 金崇謙의 次韻詩 작법과 운용의 실제』,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5-41쪽.
 - 6) 신은경, 『次韻詩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尹善道의 시를 대상으로』, 『동양학』 67, 동양학연구원, 2017, 1-20쪽.

차운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작시 방법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지식이라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차운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차운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이자 시문학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밝히는 연구라는 점에서 또 다른 후속 연구를 견인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次韻詩에 드러난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杏園 崔東立의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로는 행원이 16~17세기에 활동한 小北계열의 대표적인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小北七學士⁷⁾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진 만큼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았음에도⁸⁾ 행원에 대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은 소북계열 문인들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행원의 시세계를 조명하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일면 의의를 지닌다. 두 번째로는 행원의 시세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차운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행원의 학문적 경향이나 선시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운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행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작품에서 지식 활용의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므로 차운시의 특징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이 글은 행원의 시세계 중 일부인 차운시를 다루면서도 거시적으로는 차운시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2장에서는 행원의 삶과 차운시를 개관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식 활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행원의 삶과 문집에 대한 소개

7) 崔東立(1557~1611), 南以恭(1565~1640), 金薰國(1572~1657), 李必亨(1571~1607), 朴彝叙(1561~1621), 宋駟(1557~1640), 朴慶業(1560~1626)

8) 鄭胤永, 『北譜』, 『北譜序』, “嗚呼天運往復, 仁祖撥亂奉母后, 而建皇極曩之, 冤者神之, 幽者拔之, 直忠者旌之, 於是小北者著焉. 後文有七學士八文章五君子, 并皆懷抱利器以鳴國家之盛.”

가 학계에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초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차운시에서 확인되는 지식의 층위를 나눠 차운시가 지식 활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식 활용 양상의 전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행원의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살펴볼 양상은 학시 과정으로서의 차운과 지식 습득 면모이다. 행원의 차운시를 살펴보면,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으므로 초학자가 시를 배우기 위해 특정 기간에 창작했다고 보기보다는 원운시를 학시의 대상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논할 수 있겠다. 또한 행원은 학시 과정으로서 차운시를 창작하고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특정한 스승의 시에 차운하기보다는 중국 작가의 작품을 학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는 지식 교류 측면에서의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이 지식 교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는 즉흥적 지식 공유를 통한 실시간 소통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차운시는 즉시 때에 맞춰 원운시의 운자를 활용한 시 창작이 가능한 장르이므로, 시적 흥취를 비롯해 해당 지식을 나누며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행원의 삶과 차운시 개관 및 지식 활용의 의미

2장에서는 먼저 행원의 삶과 차운시 작품을 개관함으로써 문인과 차운시 작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杏園 崔東立(1557~1611)의 본관은 朔寧이며 자는 卓爾 호는 杏園·杏雨이다. 崔濬哲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崔繼宗이고, 아버지는 崔忭이며, 어머니는 禹成勳의 딸이다. 증조부 崔濬哲은 사헌부 집의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崔繼宗은 좌승지에

추증되었고, 아버지 崔忭은 이조 참관에 추증되는 동시에 寧原君에 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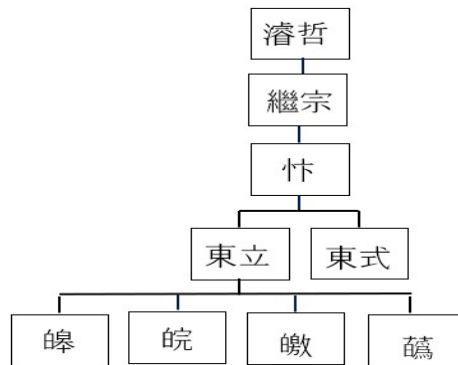


그림 1. 杏園 崔東立의 가계도

행원은 1585년(선조 18) 進士가 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임금을 의주까지 扈從하였으며, 義州行在所에서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또 예문관 검열을 지냈으며⁹⁾ 1595년(선조 28) 예문관 대교¹⁰⁾와 예문관 봉교에 제수되었고¹¹⁾ 1597년(선조 30)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兵曹佐郎을 역임했다.¹²⁾ 1599년(선조 32) 시강원 사서¹³⁾, 사헌부 장령¹⁴⁾, 성균관 직강¹⁵⁾ 등을 지냈다. 1600년(선조 33) 輸城察訪을 지냈으나¹⁶⁾ 司憲府와 兩司, 吏曹에서 수성 찰방 행원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자¹⁷⁾ 관작을 삭탈 당했다. 이후 1607년(선조 40)에 이르러 淳昌

9)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18일 을해 5번째기사>.
 10) 『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13일 신사 4번째기사>.
 11)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7일 을사 3번째기사>.
 12)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5일 갑술 6번째기사>.
 13)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8일 무오 4번째기사>.
 14)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14일 갑자 5번째기사>.
 15)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2월 28일 무인 5번째기사>.
 16) 『선조실록』 122권, <선조 33년 2월 15일 기축 4번째기사>.

郡守가 되었으며, 1610년(광해 2년) 호조 참의¹⁸⁾ 황해 감사¹⁹⁾ 등을 지냈다.

翔于邇列	근신의 반열에 있을 때에는
百鍊剛也	백 번 버린 강철같았고
屈以外庸	굽혀져 외직으로 나갔을 때에는
古循良也	옛날의 순량이었네
愈蹟愈蹇	넘어지고 절뚝거릴수록
不變塞也	곤궁할 때의 마음 바꾸지 않았고
譏排兇佞	간흉과 아첨꾼을 배척할 때에는
幾碎齶也	거의 잇몸이 부서질 정도였다네
纔聞登造	높은 곳 올랐단 말 듣자마자
半途折也	중도에 꺾이고 말았으니
孰短其長	누가 그 수명 짧게 만들었나
理難必也	이치는 기필하기 어렵다네
菀彼樂丘	무성한 저 아름다운 언덕
天啓祉也	하늘이 복을 열어 준 것이니
盍徵于斯	어찌 이것을 징험하지 않겠는가
公有子也	공에게 훌륭한 아들 있구나 ²⁰⁾

이 작품은 月沙 李廷龜(1564~1635)가 지은 『黃海道觀察使崔公神道碑銘』인데, 행원의 삶을 집약적으로 그린 銘이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정구는 처음 進士가 되어 같은 시기 선발된 사람들과 太學에 들어갔을 때 대열에서 흰칠하게 떨어진 자가 있었는데,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風神이 단정하였고 술자리에서 즐겁게 의기가 투합하여 일찍 만나지

17) 『선조실록』 122권, <선조 33년 2월 16일 경인 3번째기사>, <선조 33년 2월 18일 임진 1번째기사>, <선조 33년 2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선조 33년 2월 19일 계사 1번째기사>.

18) 『광해군일기』 28권, <광해 2년 4월 20일 을미 4번째기사>.

19) 『광해군일기』 32권, <광해 2년 8월 27일 기해 1번째기사>.

20) 李廷龜, 『月沙集』 별집 卷6, 『黃海道觀察使崔公神道碑銘 并序』.

못했음이 안타까울 정도였다고²¹⁾ 명에 부기된 서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정구는 행원의 여러 주요 행적을 나열한 후 묘지명을 지었는데 1~4구는 행원이 벼슬에 있던 동안의 면모와 외직으로 갔을 때의 상황을 그려낸 것이다. 벼슬에 있을 때에는 강철과 같이 直言을 할 정도로 의기가 굳세었으며 또 외직에 있을 때에는 循良한 관리였음을 말한 것이다. 5~8구는 행원의 성품을 언급한 것으로 곤궁할 때도 뜻을 바꾸지 않았으며 또 간혹을 배척할 때는 극렬하게 배척했음을 말한 것이다. 9~16구는 이정구가 행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는 동시에 훌륭한 후손을 언급해 그를 위로하고자 한 것이다.

人傑擁終靈	종남산의 신령한 기운 품은 인걸이고
秀氣不凡骨	빼어난 기운과 비범한 기골 있다네
蟻觀一世豪	일세의 호걸을 개미처럼 여기니
奚趨十丈拔	어찌 열 길만 솟구쳤겠는가
層巒振六翮	층층 바람에 큰 날개 떨쳤고
豹變文甚蔚	표변하여 문체가 성대했다네
曳裾拂天棖	옷자락 끌며 궁궐 문 스쳤고
鐵冠橫白筆	철관 쓰고 붓을 비껴챘구나 ²²⁾
...(후략)...	

이 작품은 梁慶遇(1568~?)가 지은 <挽崔監司東立> 44구 가운데 1~8구를 인용한 것이다. 挽詩라는 장르의 특성상 망자에 대한 애도와 칭양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나 행원의 삶이 잘 그려져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한 1~4구에는 행원의 뛰어난 인물됨과 호방한 면모가 담겨있으며, 이후 5~8구에는 표범이 변화한다고 하여 문체의 성대함을 칭양하

21) 李廷龜, 『月沙集』 별집 卷6, 『黃海道觀察使崔公神道碑銘 并序』, “始余成進士, 偕一榜入太學, 見有頎然秀出于行者, 人稱崔卓爾. 與之語, 風神學舉, 酒間相得驩然, 恨晚也. 于今三十年, 卓爾墓草宿矣, 尚忍銘卓爾墓哉.”

22) 梁慶遇, 『霽湖集』 卷1, <挽崔監司東立>.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행원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점에 있으므로 그의 문학적 역량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위 작품을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杏園 崔東立의 문집 『杏園遺稿』에 수록된 전체 작품을 개관하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차운시 작품의 분포 양상을 살펴도록 하겠다.

표 1. 杏園 崔東立 문집의 전체 작품 및 차운시 수량 개관

문집 현황	형식	전체 작품 수	차운시 작품 수
卷1	五言絶句	28題 38首	3題 9首
	七言絶句	92題 116首	15題 19首
卷2	五言律詩	38題 85首	7題 53首
卷3	七言律詩	92題 136首	32題 60首
卷4	七言律詩	48題 83首	13題 46首
	古詩	10題 10首	1題 1首
	賦 1篇, 表 1篇, 科題 1篇		
卷5	雜著 2篇, 書 3篇, 序 2篇, 祭文 1篇, 回文 1篇, 說 2篇		
	附錄 - 王言 6篇, 序 2篇, 祭文 2篇, 狀德 3篇, 挽詞 3篇		

<표1>에 제시되어 있듯이 행원의 시문학 전체와 그의 차운시를 개관해 본 결과 먼저 한시 작품은 총 308題 468首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文도 형식별로 다양한 작품이 남아있기는 하나, 행원의 경우 비중으로 따져보았을 때 詩 창작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 작품 가운데서도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차운시 작품을 추출해보면, 행원은 총 71題 188首의 차운시를 창작했는데 이는 전체 작품 대비 40%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행원의 문집에 담긴 작품이 형식별로 수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행원은 五言보다 七言을 선호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七言律詩 형식을 활용해 가장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인 대다수가 七言律詩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양상

이 특징적이라고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古詩 형식으로 지은 시가 적고 近體詩 작품이 대다수라는 것과 행원이 다양한 형식을 사용해 다수의 차운시를 창작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원의 시세계의 특징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운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행원의 차운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차운시라는 장르 전반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 양상을 개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차운시는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보여주는 문학 장르이므로 지식 활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따라서 차운시에 드러나는 지식의 층위를 대별해보으로써 논의의 전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차운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의 층위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韻字 활용에 대한 지식 습득을 들 수 있다. 차운시는 원운시의 운자를 순서대로 차용하여 창작하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원운시에서 끊임없이 지식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받는다. 차운시를 작시할 때 택하게 되는 원운시는 지식 그 자체이며 특히 押韻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은 작시 방법 습득 측면에서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시의 경우 시라는 특성상 음악성을 염두하여 창작해야 하는데 차운시 창작은 압운을 통한 음악성 구현 방식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두 번째는 시의 소재로 대별되는 지식에 대한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²³⁾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차운시의 경우 원운시의 소재와 연결하여 시를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 소재를 활용하여 영물에 대해 작품을 창작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는 차운시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차운시는 詩想을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이므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해 개념적으로 명확한 意識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²⁴⁾ 유의미한 인식의 모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든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시상에 대한 공유는 곧 지식 공유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네 번째로 차운시는 즉흥적 지식에 해당하는 시적 흥취를 나눌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즉흥적 흥취를 나누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樓亭詩, 紀行詩, 流配詩 유형의 차운 작품에서 자주 확인된다.²⁵⁾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分韻하여 시적 흥취를 나누는 경우 역시 즉흥적 지식 공유에 해당한다. 또한 疊韻하여 연속적으로 계속 재차 차운하는 경우, 혹은 모임에서 唱和하여 여러 명이 연달아 차운시를 창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행원의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용 양상

1) 학시 과정으로서의 차운과 지식 습득

이 절에서는 학시 과정으로서의 차운과 지식 습득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체로 차운시 창작은 학시 초기에 시 습작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도 한다. 행원의 차운시를 살펴보면, 전 문집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으므로 초학자가 시를 배우기 위해 특정 시기에 창작했다고 보기보다는 원운시를 학시의 대상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논할 수 있겠다. 행원은 학시 과정으로서 차운시를 창작하고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특정한 스승의 시에 차운하기보다는 중국 작가의 작품을 학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

24)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대사전』, 학원사, 1963.

25) 윤재환, 『退溪의 次韻詩에 나타난 詩的 疏通의 樣相』,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228쪽. 이러한 차운시에는 기행과 유람의 흥이나 생의 반추, 안일과 유희 그리고 도덕적 각성 및 수양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한 경우 唐나라 시에 차운하거나 杜甫(712~770)와 孟浩然(689~740)의 작품 중에 몇 수를 임의대로 뽑아서 차운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작품 분석을 통해 행원이 원운시에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으며, 학문적 측면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행원이 唐詩를 학시의 대상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행원은 唐詩 五言絶句를 뽑아 베껴서 아들에게 주고 이어 차운시를 창작한 바 있다. 唐나라 작가 가운데 활동 시기가 盛唐에 해당하는 蓋嘉運, 王維(699~759), 王縉(700~781), 儲光羲(707~763)의 시를 선별하여 차운시를 지은 것이다.

(1)

誤嫁五陵兒	오릉의 호협한 이에게 잘못 시집가서
空閨夜夜啼	빈 규방에서 밤마다 우네요
欲從關塞去	변방으로 간 곳 따라가고 싶지만
不省路東西	길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 없네요 ²⁶⁾

(2)

打起黃鶯兒	피꼬리 깨워서
莫教枝上啼	가지 위에서 울게 하지 마세요
啼時驚妾夢	울면 제 꿈도 깨어져
不得到遼西	요서에 갈 수가 없게 되니까요

聞道黃花戍	듣자 하니 황화의 수자리는
頻年不解兵	해가 가도 병사를 풀어주지 않는다 하니
可憐閨裏月	서럽구나 규방 안을 비추는 달아
偏照漢家營	그곳 한나라 병영도 비추어다오 ²⁷⁾

26) 崔東立, 『杏園遺稿』 1卷, <抄唐詩五言絶句給小兒輩仍次其韻 七首- 次蓋嘉運伊州曲>.

27) 蓋嘉運, 『唐音』, 6卷, <伊州歌>.

위 인용시는 <抄唐詩五言絕句給小兒輩仍次其韻> 7首²⁸⁾ 가운데 첫 번째 수를 가져온 것이다. 작품 (1)은 행원이 蓋嘉運의 <伊州曲>에 차운한 작품이며, (2)는 蓋嘉運이 지은 원운시 <伊州歌>를 별도로 인용한 것이다. 행원이 창작한 차운시 작품 (1)을 먼저 살펴보면, 원운시 가운데 1수에만 차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원운시의 내용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 자리 살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았다. 이에 이 시를 통해 보았을 때 행원이 盛唐 시의 운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蓋嘉運의 작품이자 원운시에 해당하는 작품 (2)의 경우 唐나라 玄宗 때 伊州에서 채집한 곡조로 알려진 <伊州歌>인데, 수 자리에 나간 남편을 그리는 애절한 심경이 담겨있는 동시에 盛唐의 모습이 잘 구현된 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행원의 경우 학시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차운한 작품 간의 유사성이 확인되는 편이므로 행원이 唐詩를 학시의 대상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삼아 차운시를 창작했다고 논의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杜甫의 작품을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해 창작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두보는 詩聖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막론하여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대다수의 문인이 두보를 전범으로 상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원의 경우 두보의 五言律詩에 차운해 <抄杜詩五言律和次其韻 十八首 一次徐步, 次獨酌成詩, 次遣懷, 次遠遊, 次散愁, 次旅夜書懷, 次歸, 次江上, 次垂白, 次獨坐, 次東屯北菴, 次悶, 次遣憂, 次耳聾, 次別房太尉墳, 次晚行, 次入喬口, 次山館>²⁹⁾ 18首를 작시하였다. 한 작가의 시에 차운해 연달아 18首를 창작한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그가

28) 崔東立, 『杏園遺稿』 1卷, <抄唐詩五言絕句給小兒輩仍次其韻 七首- 次蓋嘉運伊州曲, 次王維班婕妤, 次前人竹里館, 次前人山中送別, 次王夏卿別輞川別業, 次儲光義長安道, 次前人洛陽道>.

29) 崔東立, 『杏園遺稿』 1卷, <抄杜詩五言律和次其韻 十八首 一次徐步, 次獨酌成詩, 次遣懷, 次遠遊, 次散愁, 次旅夜書懷, 次歸, 次江上, 次垂白, 次獨坐, 次東屯北菴, 次悶, 次遣憂, 次耳聾, 次別房太尉墳, 次晚行, 次入喬口, 次山館>.

지냈던 선시 취향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시의 전범으로 두보를 상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작품을 인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1)

幽居南郭下	남쪽 성곽 아래에 은거해
寂寞與誰親	적막하니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世事空流涕	세상일에 공연히 눈물 나니
風光亦愴神	풍광도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幸有詩兼酒	다행히 시와 술이 있어
休言影伴身	그림자만 짝한다고 말하지 않으나
唯聞啄木鳥	딱따구리 소리만 들릴 뿐
不見叩門人	문 두드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네 ³⁰⁾

(2)

燈花何太喜	등불 보니 그 얼마나 기쁘는가
酒綠正相親	푸르게 익은 술을 가까이할 수 있으니
醉裡從爲客	취중에 나그네 신세로
詩成覺有神	시를 지으니 신이 있는 줄 알겠지만
兵戈猶在眼	전란이 아직도 눈앞에 있으니
儒術豈謀身	학문이 어찌 출세시킬 수 있겠나
苦被微官縛	작은 벼슬 얽매임에 마음 괴로워
低頭愧野人	들 사람에게 부끄러워 고개 숙이네 ³¹⁾

시 (1)은 <抄杜詩五言律和次其韻 十八首> 가운데 <次獨酌成詩> 중 일부이며, (2)는 杜甫의 元韻詩 <獨酌成詩>를 인용한 것이다. 崔東立의 문집에는 次韻詩만 수록되어 있으나, 비교 검토를 위해 함께 인용하고자 한다. 먼저 행원의 작품인 (1)을 살펴보면, 은거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지닌 主情的 감정이 주된 정서로 활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情景交融의 수법이 잘 구사되어 있는데, 시인의 감정과 주변 경관이 일치

30) 崔東立, 『杏園遺稿』 1卷, <抄杜詩五言律和次其韻 十八首 次獨酌成詩>.

31) 杜甫, 『杜詩詳註』 5卷, <獨酌成詩>.

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 마지막에 이르면 감각적 이미지 중 하나인 청각적 심상이 시적으로 구현되는데, 이미지를 활용해 적막함이라는 감정과 분위기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唐風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두보의 작품인 (2)의 경우 행원의 차운시와는 일면 시적 정조가 다르나, 哀傷感의 미학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포착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모두 典故를 활용하지 않고 시적 자아의 시상을 시의 표면에 잘 구사하였으며 主情的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따라서 행원은 盛唐風의 정수로 지칭되는 杜甫의 작품에 차운함으로써 盛唐의 기세를 체현하고 시를 배우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³²⁾

세 번째는, 孟浩然的 작품을 차운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맹호연 역시 唐나라 대표 문인으로 시는 五言詩가 가장 빼어나고, 풍격이 청신 표일하고 산수전원시를 창작하는데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³³⁾ 행원은 맹호연의 작품 한 수를 지식의 원천으로 삼아 차운시를 연달아 5首를 지었는데, 이러한 애호 양상은 당나라 시인과 작품에 대한 애호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시의 전범을 어떻게 상정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1)

東家已賣書	동가에서 이미 서적을 팔았는데
南郭始開廬	남곽의 집이 막 열리기 시작하네
圃藥抽莖短	약포의 약초 줄기 돌아난 것 짧고
庭篁帶葉疎	마당의 대나무 잎은 엉성하네
心閑身更健	마음이 한가로우니 몸은 다시 건강해지고
事少病還除	일이 적으니 병 또한 없어지네
可笑人間事	가소롭구나 세상일이

32) 김묘정, 『조선후기 소북문단의 형성과 소북팔문장』, 학자원, 2021, 42-43쪽. 김묘정의 저서에서 소북칠학사의 학문 경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지면서 행원 최동립의 시경향이 일부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시세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행원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33) 侯健 主編, 『中國詩歌大辭典』, 北京, 作家出版社, 1990, 110쪽.

浮雲過太虛 (2)	허공을 지나는 뜬구름 같은 것 ³⁴⁾
北闕休上書	대궐에 상서하는 일 그만두고
南山歸弊廬	남산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왔네
不才明主棄	재주 없어 현명한 군주도 버렸고
多病故人疏	병이 많으니 친구들도 멀어져가네
白髮催年老	백발은 늙음을 재촉하고
靑陽逼歲除	봄날이 가까워지니 한 해가 지나가네
永懷愁不寐	오랜 생각 수심에 잠겨 잠 못 이루는데
松月夜窗虛	소나무 사이 달빛 비치는 밤 창이 고요하네 ³⁵⁾

작품 (1)은 행원이 지은 <次孟浩然南山詩> 5首 가운데 첫 번째 수를 인용한 것이고, 작품 (2)는 孟浩然的 원운시를 가져온 것이다. 행원의 문집에는 차운시 작품만이 남아있고, 원운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원운시가 함께 부기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형식상의 통일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행원이 맹호연의 원운시 작품에 차운하여 연달아 5수를 창작하였으므로 함께 인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작품 (1)은 행원의 시로 벼슬에서 물러나 자신의 집에서 거처하는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행원의 처지가 맹호연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시는 원운시와 시적 정조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행원은 자신의 처지와 약초와 마당의 대나무를 읊어 은연중에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련에 잘 나타나 있듯 세상일이 모두 허공의 뜬구름과 같다고 표현하여 심경을 곡진하게 표출하고 있다. 작품 (2)는 맹호연의 원운시 <歲暮歸南山>으로 歲暮에 南山으로 돌아가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시이다. 이 작품은 행원뿐만 아니라 여타 문인들이 詩句를 인용하거나 언급하면서 많이 알려졌기에 맹호연의 대표작 중

34) 崔東立, 『杏園遺稿』 2卷, <次孟浩然南山詩> 5首.

35) 孟浩然, 『唐詩三百首』, <歲暮歸南山>.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수련은 조정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음을 말한 것이며, 함련은 자조적 시선으로 자신의 처지를 읊은 것이다. 경련에는 세월의 무상함과 늙어가는 처지가 담겨있고, 미련에는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 고요한 풍경이 그려져 있는 동시에 수심에 잠겨 잠 못 이루는 맹호연의 심경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 작품은 意境이 深妙하다고 평가받은 바 있으며,³⁶⁾ 진솔한 심경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唐詩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행원은 맹호연의 시를 애호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작품의 정수와 지식을 체득하여 자신의 시에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2) 지식 교류 측면에서의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

차운시는 운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작시하는 방식인 만큼 원운시에 담긴 특정 지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에 유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지식 교류 측면에서 차운시를 조망하고자 하는데 지식 교류라고 했을 때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운자 그 자체일 수도 있으나, 2차적으로는 시에 담긴 내용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차운시는 운자의 구속이 심하다는 점에서 여러 병폐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으나,³⁷⁾ 반대로 원운시의 운자를 쓰게 되면 소리와 형식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작자는 詩想의 구상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을 지닌다고 생각된다.³⁸⁾ 따라서 시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지식, 그 가운데서도 소재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이 지식 교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36) 高步瀛, 『唐宋詩學要』.

37) 강민호, 『압운의 미학으로 본 차운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2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51쪽.

38) 윤재환, 『退溪의 次韻詩에 나타난 詩의 疏通의 樣相』,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225쪽.

(1)

暮向園東瓜圃尋 날 저물어 원동으로 가서 참외밭을 찾으니
 鋤除不教草根侵 호미로 제거하여 풀뿌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네
 脩盤弱蔓占他畝 받침을 수리하여 약한 덩굴은 다른 이랑을 차지하게 하고
 曲綴柔莖借客林 굽고 이어진 약한 줄기는 다른 임지를 빌리게 하네
 露顆堆時疑種玉 낱알이 쌓여갈 때는 옥을 심었는가 의심하고
 氷肌剝處傲流金 차가운 껍질 벗기는 곳에서는 더위를 업신여기네
 博望辛苦移西果 張騫이 고생하여 서과를 옮겨 왔으니
 嚼去何如此味深 씹을수록 그 맛이 어떠한가

斬棘爲籬長數尋 가시나무 베어서 울타리 만드니 길이가 몇 길 되는데
 護田無復乳鷄侵 밭을 보호하니 다시는 병아리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네
 幽畦幸得移仙種 깊은 밭두둑에 다행히 신선의 종자를 얻어 옮겨오니
 隙地寧容間雜林 틈새 땅에 어찌 잡목이 섞이는 것을 용납하겠나
 紋殼織成機上錦 무늬 있는 껍질은 베틀에서 비단을 짜서 만든 듯
 凝津鍊出鼎中金 영기는 진액은 솥 속의 금으로 녹여낸 듯
 不知何日雲間鵠 알지 못하겠네, 어느 날에 구름 속의 고니가
 啣子來從閬苑深 깊은 낭원에서 종자를 물고 올지를³⁹⁾

(2)

日向園中去復尋 날마다 정원에서 갔다 왔다 찾으며
 栽瓜恐有小兒侵 참외를 심으면서 아이들의 침입을 두려워하네
 當風蔓弱纔縈砌 바람 앞 약한 덩굴 겨우 얽혀있고
 浥露花團半翳林 이슬에 젖은 화단은 무성한 숲에 반쯤 가리었네
 面對細紋瑕點玉 표면의 가는 무늬는 티가 찍힌 옥이고
 心含細核鑄成金 속의 작은 씨는 주조한 금이네
 東陵西域皆塵種 동릉과 서역의 것 모두 티끌 속이니
 眞味何能較淺深 진미의 깊고 얕음을 어찌 비교할 수 있으리⁴⁰⁾

위 작품 (1)은 행원이 정칙의 운을 따서 지은 차운시 작품 <種眞瓜> 이고, 작품 (2)는 정칙의 원운시 <附元韻>이다. 행원의 문집에는 행원의

39) 崔東立, 『杏園遺稿』 3卷, <種眞瓜> 2首.

40) 崔東立, 『杏園遺稿』 3卷, <附元韻>.

차운시 2首와 정칙의 원운시 1首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侵, 林, 金, 深이라는 운자를 그대로 활용하여 차운시를 창작했으므로 押韻 활용에 대한 지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의 경우 원운시의 참외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차운시를 지었다는 점에서 한시라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인 지식이 구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문집 수록 순서대로 행원의 차운시를 먼저 살펴보면, (1)의 <種眞瓜> 1首의 수련에는 참외밭에서 호미질하는 모습이 담겨있고, 함련에는 약한 넝쿨과 유약한 줄기를 손보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또한 경련과 미련에서는 참외의 외적 모습과 맛을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2首를 살펴보면, 수련은 참외밭에 울타리를 조성하는 과정이며 함련에서는 참외를 신선의 반열에 올려 “仙種”으로 지칭하며 잡목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함을 언급하였다. 경련은 참외 껍질의 무늬와 참외의 진액을 묘사한 것인데, 베틀에서 비단을 짜고 솔 속의 금을 녹여낸 듯하다고 표현하였음을 볼 수 있다. 미련은 어느 날 구름 속을 나는 고니가 신선이 사는 깊은 낭원에서 참외 종자를 물고 올지 모르겠다고 언급해 참외 종자에 신선 이미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운시에 해당하는 (2)를 살펴보면, 수련은 참외를 재배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침입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말한 것이고, 함련은 바람 앞에 엷혀있는 약한 덩굴과 이슬에 젖은 화단을 담아낸 것이다. 경련은 참외의 외형을 그려낸 것인데 참외를 옥으로 보는 동시에 참외씨를 주조한 금으로 언급해 참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였다. 미련은 동릉과 서역에서 나는 참외가 모두 티끌 속에 있으니 맛의 깊고 알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1)

青荷柄曲漸彎彎 푸른 연꽃 대 굽은 것 점점 구부러보니
 斗覺清香觸鼻端 문득 맑은 향기 코끝에 닿는 것을 깨닫네
 莖似葛陂龍化杖 줄기는 갈피의 용으로 변화한 지팡이 같고
 葉如金闕露承盤 잎은 금궐의 승로반 같구나
 瓊濤帶苦心先醉 쓴맛 먼 정도에 마음이 먼저 취하고
 玉液含涼骨亦寒 서늘한 옥액에 뼈조차 차갑구나
 座上佳人來勸飲 자리에 가인이 와서 마시기를 권하는데
 莫教金縷濕難乾 황금 실로 장식한 옷 젖어서 마르게 어렵게 하지 마시오⁴¹⁾

(2)

粉屑霏霏縵眼前 눈가루 펄펄 날려 눈앞에서 어른거리는데
 迎祥却喜驗豐年 상서를 맞이하여 도리어 풍년 든 것 기쁘구나
 梅邊細着分偏後 매화 근처에 붙어서 이리저리 날린 후에
 柳外輕飄見最先 버드나무 너머 가볍게 나부끼는 것을 가장 먼저 보네
 曠日殘痕消入地 해 비추니 남은 흔적은 땅으로 스며들고
 隨風亂點舞漫天 바람 따라 어지러이 흩날리는 눈은 하늘 가득히 춤추네
 撒塩飛絮渾閑語 소금 뿌리고 흰 버들 날라는 듯 하다는 것 모두 한기로운 말이니
 試看流膏潤麥田 기름 흐르는 보리밭 윤택하게 하는 것 시험 삼아 봐야겠네⁴²⁾

위 작품은 <家有續鼓吹一卷抽出諸作和次其韻> 29首 가운데 세 번째, 다섯 번째 시를 인용한 것이다. 시제에 나타나 있듯 이 시는 『續鼓吹』 한 권에서 여러 작품을 뽑아내 차운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續鼓吹』를 비롯해 『唐音』, 『唐賢詩』, 『唐詩鼓吹』, 『唐詩絕句』, 『唐百家詩選』, 『三體詩』 등으로 대별되는 宋代에 편찬된 唐詩選集이 주로 읽혀졌는데, 행원 역시 당시선집 가운데 여러 수를 추출하여 차운시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續鼓吹』 가운데서도 袁凱·張彥倫·張着·釋來復·張羽·高啓·具瓊·吳志淳·徐賁·陶誼·浦源·宋璠·包英·包聖·沈夢

41) 崔東立, 『杏園遺稿』 4卷, <家有續鼓吹一卷抽出諸作和次其韻> 29首, <次張着碧簫飲>.

42) 崔東立, 『杏園遺稿』 4卷, <家有續鼓吹一卷抽出諸作和次其韻> 29首, <次張羽春雪>.

獮·管訥·王彝·具鞞·翟克讓·周子羽·繆伯雨·釋文琇·馮海粟·張紳·張籌·郭奎 총 26명의 작품을 차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차운시는 먼저 내용 전개 측면에서 원운시의 소재를 가지고 와 효과적으로 詩想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시 창작을 통한 지식 교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 (1)은 <次張着碧筩飲>으로 원운시와 마찬가지로 벽통음에 대한 논의를 개진했으며, 작품 (2)는 <次張羽春雪>로 춘설에 대한 시상을 시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작품은 唐詩選集의 작품 중에서 몇 수를 발췌해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지식의 가공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당시선집이 唐詩가 시학의 전범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나오게 된 저서라는 점을 염두한다면⁴³⁾ 唐詩가 하나의 지식으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많은 당시 가운데서도 특정한 작품을 선택해 수록했다는 점에서 당시선집 『續鼓吹』는 한 차례 더 가공 과정을 거친 지식의 산물이다. 이후 행원에 의해 지식을 추출하는 작업이 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이는 29수를 추출하여 차운시를 쓰게 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행원은 지식의 원천인 원운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 가공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개된 시는 대체로 원운시의 소재를 지식의 원천으로 삼고 詩想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 작품 (1)을 먼저 살펴보면, 碧筩飲은 碧筩酒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벽통은 三國시대 魏나라 鄭齋이 무더위를 피하며 큰 연잎에 술 서 되를 담고 연의 잎과 줄기의 사이를 뚫은 후 술이 줄기를 타고 내려오게 하고 코끼리의 코처럼 구부려서 줄기 끝에 입을 대고 술을 받아 마셨다는 일화를 말한다. 이에 작품 (1)은 張着的 <碧筩飲> 작품에 차운하면서도 벽통음에 대한 소재를 활용해 시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볼 수 있다. 수련은 연꽃 줄기를 구부리니 술의 맑은 향이 코에 스며드는 것을 말한

43) 최석원, 『明代 詩選集을 통해 본 唐詩에 대한 지식의 창출과 수용』, 『중국문학』 9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8, 119-120쪽.

것이며, 함련은 즐기와 잎을 그려낸 것인데 즐기는 용으로 변화한 지팡이와 같고 잎은 신선이 손바닥으로 소반을 받들고 仙藥을 만들 때 사용하는 承露盤의 모습임을 말한 것이다. 경련에서는 술을 쓴맛 띤 정도와 서늘한 옥액으로 지칭하여 술의 맛과 차가운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미련은 가인이 와서 마시기를 권하니 옷 젖어서 마르게 어렵게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다.

다음으로 작품 (2)는 張羽의 <春雪>에 차운한 것으로, 눈이라는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상을 개진했다. 수련은 동짓날을 맞이하여 눈이 펄펄 내리는 모습을 보고 풍년이 든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함련은 눈의 모습을 포착한 것인데, 매화 근처에 붙어 있다가 버드나무 너머로 날아가는 눈의 움직임을 시에 담아두었다. 경련은 원경으로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행원은 햇살이 비추자 땅속으로 녹아 자취를 감추는 눈을 포착하는 동시에 바람 따라 춤추듯 사라지는 하늘의 눈을 동시에 그려냈다. 미련은 눈을 비유적으로 그려낸 것인데 소금이 뿌리는 듯하고 흰 벼들 날리는 듯한 눈의 모습을 언급하는 동시에 기름 흐르는 보리밭을 적시는 눈의 모습을 보겠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즉흥적 지식 공유를 통한 실시간 소통

차운시는 즉시 때에 맞춰 원운시의 운자를 활용한 시 창작이 가능하므로 즉흥적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는 장르다. 특히 시적 흥취를 비롯해 해당 지식을 나누며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원운시의 작가가 동시대 인물일 수도 있으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문인일 수도 있으므로 차운시는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의 지식 확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시를 통한 문학적 지식 공유는 지식 확산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차운시를 활용한 지식 공유 및 소통 양상은 형식별로 나눠보았을 때, 疊韻하여 연속적으로 계속 재차 차운하는 경

우, 혹은 모임에서 唱和하여 여러 명이 연달아 차운시를 창작하는 경우, 分韻하여 시적 흥취를 나누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이 절에서는 행원의 차운시에 드러나는 즉흥적 지식 공유와 실시간 소통 양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未到林亭日	아직 숲속 정자에 이르지 못한 어느 날
先看從弟詩	먼저 종제의 시를 보았네
穿花行間路	꽃길 사이를 뚫고 가며 길을 물었고
拂石坐移時	바위에 먼지 털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네
岸斷臨沙渚	언덕은 끊어져 사저를 굽어보며
門低翳柳枝	문은 낮은데 버들가지가 가렸네
出城塵事少	성을 나왔으니 티끌 세상의 일이 적어
此地可棲遲	이곳이 은거하여 살만하네 ⁴⁴⁾

(2)

行吟溪上路	가면서 시냇가 길에서 읊조리니
強覓幾篇詩	억지로 몇 편의 시를 찾았네
戀景忘前路	경치를 사랑하여 길 가는 것도 잊고
尋春恐後時	봄을 찾아서 때에 늦을 것을 두려워하네
山濃當戶色	산은 집에 가까워질수록 색이 짙어지고
花晚背陰枝	꽃은 그늘진 가지에 등져서 늦게 피었네
却恨身多病	더구나 몸에 병 많음을 한탄하니
東風出郭遲	봄바람 불어도 성 밖에 나가는 것이 더디네 ⁴⁵⁾

이 작품은 <次全晦之韻> 20首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수를 인용한 것인데, 종제 全晦之(?~?)의 시에 차운하여 20首를 연달아 지었다는 점이 독특하기도 하며 즉흥적 지식 공유와 실시간 소통 면모가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종제 관계인 전희지

44) 崔東立, 『杏園遺稿』 2卷, <次全晦之韻> 20首, 其1.

45) 崔東立, 『杏園遺稿』 2卷, <次全晦之韻> 20首, 其2.

의 시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작품 (1)의 수련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잘 담겨있다. 이후 20수의 작품은 모두 주변 경물을 살피면서 시를 짓고 봄날의 흥취를 읊는가 하면, 한적한 삶에 대한 감회를 토로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이 작품은 행원이 벼슬에서 물러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시에 같은 운자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이 전회지의 시를 습득한 이후 진행되었으며, 한시로 시적 소통을 이어가려고 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적 지식 공유와 확산의 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수를 살펴보면, 1~2구에는 행원이 종제 회지의 시를 보게 된 경위가 잘 나와 있으며, 3~4구에는 숲속 정자로 가는 여정이 담겨있다. 5~6구는 도착한 곳의 주변 풍경을 그려낸 것이고, 7~8구는 속세에서 벗어났으니 이곳이 은거하기에 알맞다고 표현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2수부터는 행원이 시를 쓰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平聲韻 ‘支’ 운목의 운자를 사용해 수련에서 운자 ‘詩’로 압운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인 동시에 원운시의 지식을 공유한 면모라고 볼 수 있다. 1~2구는 시냇가 길에서 읊조려 시를 얻었음을 말한 것이며, 3~4구에는 길 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애호하는 행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5~6구는 산과 꽃으로 시선이 이동했음을 볼 수 있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색이 짙어지는 산의 아름다움과 그늘에 가려져 늦게 핀 꽃을 포착한 것이다. 7~8구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데, 병이 많아 봄바람 불어도 성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읊었다.

(1)

解紱當年決獨還 人끈을 풀어놓은 당년에 홀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니
生涯付與屋三間 생애를 집 삼 칸에 부쳤네
波含落照窓臨海 물결은 낙조를 머금고 창은 바다에 임했는데

樹羃晴嵐榻近山 나무가 맑은 남기를 가리니 걸상은 산에 가깝네
 巖縮幽池看鷺立 목을 웅크린 해오라기 그윽한 못에 서 있는 것을 보며
 蔓緣頽砌掇花斑 독녕쿨은 무너진 꽃을 주우니 얼룩지네
 敲門幸有隣僧在 문을 두드리는 사람 다행히 이웃에 스님이 있으니
 爲掃松壇始出關 송단을 쓸기 위해 비로소 문밖을 나가네⁴⁶⁾

(2)

杖藜徐步久忘還 명아주 지팡이 짚고 서보하며 오래도록 돌아갈 줄 모르니
 盡日逍遙水石間 해가 다 지도록 수석 사이를 거니네
 注下園泉先灌藥 쏟아져 내리는 후원의 샘물은 먼저 약초에 물주고
 剪殘窓竹要看山 창죽을 자르는 것은 산을 보기 위함이네
 蝸行雨蘚牆排篆 달팽이 비 맞은 이끼에 가니 담에는 전서를 그렸고
 鳥啼風花砌點斑 새가 바람에 떨어진 꽃을 쪼니 섬돌에는 반점에 생겼네
 酒熟何時堪獨酌 술 익으니 아무 때나 혼자 마실만 하고
 半峰明月入松關 반봉의 명월은 송관으로 들어오네⁴⁷⁾

이 작품은 <分韻得閑字 三首> 중 一首와 二首를 인용한 것으로, 시제에 드러나 있듯이 分韻이라고 하여, 韻字를 정하고 나누어 잡아서 그 잡힌 운자로 한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閑’이라는 운자를 잡고 그 운자가 속한 平聲韻 ‘刪’ 운목에 속한 운자인 還, 間, 山, 斑, 關을 운자로 두어 시를 창작했음을 볼 수 있다. 행원은 아우 正則 崔東式(1562~1614)과의 소통 과정에서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특히 이 시는 형식적 측면에서 韻字 활용을 통한 지식 공유 및 소통 양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는 문집 전체에서 확인되는 행원과 그의 아우 崔東式이 창작한 시 목록을 문집 수록 순서대로 정리해봄으로써 한시를 통해 이뤄지는 즉흥적 지식 공유와 실시간 소통 면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문집에 대체로 행원의 작품이 수록된 이후 최동식의 원운시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차운 양상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46) 崔東立, 『杏園遺稿』 3卷, <分韻得閑字> 3首, 其1.

47) 崔東立, 『杏園遺稿』 3卷, <分韻得閑字> 3首, 其2.

표 2. 杏園 崔東立과 正則 崔東式이 소통 과정에서 창작한 시 목록

순번	제목	권 수
1	次舍弟正則苦熱韻 아우 崔東式的 고열시에 차운하다	卷1
2	附元韻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1
3	樓上贈秋風娘 누대에서 추풍랑에게 주다	卷1
4	次韻正則 崔東式이 차운하다	卷1
5	次正則贈秋風娘韻 崔東式이 추풍랑에게 준 시에 차운하다	卷1
6	附元韻, 贈秋風娘 正則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1
7	雨 二首 비 2首	卷3
8	附次韻正則 崔東式的 차운시를 붙이다	卷3
9	次正則紫茄韻 二首 崔東式的 붉은 가지 시에 차운하다 2首	卷3
10	附元韻正則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3
11	種眞瓜 二首 참외를 심다 2首	卷3
12	附元韻正則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3
13	與正則分韻得沙字 三首 崔東式과 분운하여 '사'자를 얻다 3首	卷3
14	正則韻 崔東式的 운	卷3
15	分韻得閑字 三首 분운하여 '한'자를 얻다 3首	卷3
16	附次韻 正則 崔東式的 차운시를 붙이다	卷3
17	次正則詠柿 崔東式가 감을 읊은 시에 차운하다	卷3
18	附元韻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3
19	次正則謾成韻 崔東式的 만성 시에 차운하다	卷3
20	附元韻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3
21	次正則賦麥韻 崔東式的 맥을 읊은 시에 차운하다	卷4
22	附元韻 崔東式的 원운시를 붙이다	卷4

먼저 1~2번을 보면, 행원이 崔東式的 고열시에 차운하여 한여름 더위 속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소통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3~4번은 반대로 최동식이 행원의 작품에 차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소통은 5~6번 작품으로 이어지게 된다. 3번 시에서 행원이 누대에서 추풍랑에게 주는 시를 창작하자 4번에서 최동식이 차운했으며, 5번에서 행원이 다시 추풍랑에게 준 시에 차운하고, 최동식이 추풍랑에게 준 원운시를 문집에 수록한 것이다. 7~12번은 같은 소재로 차운시 작품을 창작해 시의 소재에 대한 지식 교류 및 소통을 시도한 것이다. 소재는

雨, 紫茄, 瓜로 대별됨을 볼 수 있다. 13~16번 작품은 分韻이라는 방식으로 운자를 공유함으로써 지식 공유를 한 경우로, 분운하여 沙字, 閑字를 얻어 그 운자가 들어 있는 운목의 운을 활용해 각각 작품을 창작하고 또 여기에 최동식이 차운함으로써 시적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18번 작품은 柿을 소재로 삼아 창작한 작품이고, 19~20은 행원이 최동식의 謾成 시에 차운하고, 21~22는 麥을 읊은 작품에 차운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행원은 동시대에 함께 살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아우의 시에 차운함으로써 실시간 소통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次韻을 하면서도 分韻 방식을 활용해 그 자리에서 운자를 택하고 또 한시를 창작한 양상은 즉흥적 지식 공유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 글은 杏園 崔東立의 次韻詩 작시 양상을 중심으로 차운시 작시 방법에 따른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이에 행원의 차운시를 살펴보는 작업은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문인의 존재를 알리는 동시에 한시 작품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밝히는 연구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일면 의미를 지닌다. 지식은 문학 작품 창작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특히 한시 가운데 차운시는 지식 원천 활용의 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운시는 원운시의 운자에 차운하는 방식으로 작시되므로, 지식의 원천에 해당하는 원운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창작된다. 따라서 차운시 작시 방식을 분석하고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파악한 이 글을 통해 향후 또 다른 연구를 견인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이에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2장에서는 행원의 삶과 차

운시를 개관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식 활용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행원의 삶과 문집에 대한 소개가 학계에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초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나아가 차운시가 지식 활용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함으로써 지식 활용 양상의 전제를 마련하였다. 이에 차운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의 층위를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로 韻字 활용에 대한 지식 습득을 들 수 있음을 밝혔다. 차운시는 원운시를 지식의 원천으로 삼아 끊임없이 지식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며, 차운시를 작시할 때 택하게 되는 원운시는 지식 그 자체이며 특히 押韻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은 작시 방법 습득 측면에서 지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시의 소재로 대별되는 지식을 하나의 층위로 나눌 수 있으며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지식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차운시의 경우 원운시의 소재와 연결하여 시를 창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차운시는 詩想을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이므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지식은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해 개념적으로 명확한 意識을 의미하므로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시상에 대한 공유는 곧 지식 공유를 의미한다. 네 번째로 차운시는 즉흥적 지식에 해당하는 시적 흥취를 나눌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작품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원의 차운시에 드러난 지식 활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살펴본 양상은 학시 과정으로서의 차운과 지식 습득 면모이다. 행원의 차운시를 살펴보면, 전 문집에 걸쳐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으므로 초학자가 시를 배우기 위해 특정 시기에 창작했다고 보기보다는 원운시를 학시의 대상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다고 논할 수 있겠다. 행원은 학시 과정으로서 차운시를 창작하고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특정한 스승의 시에 차운하기보다는 중국

작가의 작품을 학시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작품 분석을 통해 행원이 원운시에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했으며, 학문적 측면에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유추해본 결과 행원이 唐詩를 학시의 대상이자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杜甫의 작품과 孟浩然的 작품에 차운해 이를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했음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지식 교류 측면에서의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 양상을 살폈다. 여기에서는 지식 교류 측면에서 차운시를 조망하였는데 지식 교류라고 했을 때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운자 그 자체일 수도 있으나, 2차적으로는 시에 담긴 내용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사실상 차운시는 운자의 구속이 심하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반대로 원운시의 운자를 쓰게 되면 소리와 형식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므로 작자는 詩想의 구상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지식, 그 가운데서도 소재 활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동일 소재를 활용한 차운시 창작이 지식 교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즉흥적 지식 공유를 통한 실시간 소통으로 양상으로, 행원의 작품을 통해 차운시가 즉시 때에 맞춰 원운시의 운자를 활용한 시 창작이 가능하므로 즉흥적 지식 공유와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르임을 밝혔다. 또한 원운시의 작가가 동시대 인물일 수도 있으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문인일 수도 있으므로 차운시는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의 지식 확산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징적임을 논의하였다. 또한 작시를 통한 문학적 지식 공유는 지식 확산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속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차운시를 활용한 지식 공유 및 소통 양상은 형식별로 나눠보았을 때, 疊韻하여 연속적으로 계속 재차 차운하는 경우, 혹은 모임에서 唱和하여 여러 명이 연

달아 차운시를 창작하는 경우, 分韻하여 시적 흥취를 나누는 경우 등으로 다양한데, 이 글에서는 행원이 원운시에 연달아 차운시를 창작하고, 동시대 인물이자 아우인 正則 崔東武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형식을 활용해 대화하고자 한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한시 작품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며, 차운시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16~17세기에 활동한 小北계열의 대표적인 문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小北七學士로 지칭된 행원의 시문학 세계,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양상인 차운시를 다룸으로써 그의 학문적 경향이나 선시 취향의 일면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차운시를 다루면서도 여전히 한시를 지식과 엮어서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동반한다. 더불어 이 글은 행원의 차운시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했기에 여전히 차운시에서 확인되는 지식 활용의 제 양상을 모두 다 분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이 글이 지니는 여러 한계점이 후속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梁慶遇, 『霽湖集』

李廷龜, 『月沙集』

鄭胤永, 『北譜』

崔東立, 『杏園遺稿』

崔東立·崔成教 編·永嘉文化社 譯, 『杏園崔東立先生 遺稿集』, 朔寧崔氏
杏園公派宗中, 2014.

2. 참고 논저

강민호, 「압운의 미학으로 본 차운시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국문학』
27, 한국중국어문학회, 2012, 49-71쪽.

김묘정, 『조선후기 소북문단의 형성과 소북팔문장』, 학자원, 2021, 1-367
쪽.

김보경, 「시가 창작에 있어서 차운의 효과와 의의에 대하여 -蘇軾의 詩
歌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45, 중국어문연구회, 2010, 45-70
쪽.

노현정, 「觀復菴 金崇謙의 次韻詩 작법과 운용의 실제」,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2020, 5-41쪽.

신은경, 「次韻詩의 상호텍스트적 성격 -尹善道の 시를 대상으로」, 『동양
학』 67, 동양학연구원, 2017, 1-20쪽.

양훈식, 「창랑 성문준의 차운시에 나타난 풍격 연구」, 『어문연구』 46, 한
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345-374쪽.

- 윤재환, 「退溪의 次韻詩에 나타난 詩的 疏通의 樣相」,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 219-247쪽.
- 최석원, 「明代 詩選集을 통해 본 唐詩에 대한 지식의 창출과 수용」, 『중국문학』 96, 한국중국어문학회, 2018, 119-120쪽.
- 한해철, 「권필 製述官 시기의 차운시 연구 明使와의 차운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67, 대동한문학회, 2021, 233-278쪽.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대사전』, 학원사, 1963.

<Abstract>

A Study on Aspect and its Meaning of
Rhyme-borrowing Poems by Knowledge
Sharing
- Focusing on Haengwon Choi Donglip's
Rhyme-borrowing Poem

Kim, Myo-Ju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per aspects of the use of knowledge revealed in Rhyme-borrowing Poems, with Choi Dong-rip (1557~1611) as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Knowledge is used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creating literary works, especially in that rhyme-borrowing poems is a material that can confirm the aspect of the use of knowledge sources among poems. Since rhyme-borrowing poems is written in a way that rhymes with original verse poem, it is crea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how you approach original verse poem, which is the source of knowledge. Therefore, this article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roper aspects of knowledge util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reative method of Rhyme-borrowing Poems.

Accordingly, Chapter 2 confirmed the life of a Haengwon and opened the entire Rhyme-borrowing Poems. In addition, the meaning of knowledge utilization was identified by dividing the layers of knowledge identified in Rhyme-borrowing Poems. Since the

* Dankook University.

introduction of the life and literary collection of the Haengwon was not made to the academic world, detailed review was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the premise of knowledge utilization was prepared by grasping what Rhyme-borrowing Poems means in terms of knowledge utilization.

Next, in Chapter 3, the knowledge utilization patterns identified in Rhyme-borrowing Poems were analyzed. The first aspect we looked at is the aspect of learning and acquiring knowledge as a course of study. Haengwon's Rhyme-borrowing Poems is continuously created throughout the entire collection and is characteristic in that the works of Chinese artists are targeted as academic poems. Second, in terms of knowledge exchange, the creative aspect of Rhyme-borrowing Poems using the same material was analyzed. This shows what the creation of Rhyme-borrowing Poems using the same material means in terms of knowledge exchange. Third, it revealed that it is a genre in which spontaneous knowledge sharing and real-time communication take place in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poetry using the rhyme of original verse poem immediately.

Key Words: knowledge, Rhyme-borrowing Poems(次韻詩),
Haengwon(杏園) Choi Donglip(崔東立),
Sobukmundan(小北), Sobukchilhaksa(小北七學士)

■ 논문접수 : 2022년 03월 30일
■ 심사완료 : 2022년 04월 20일
■ 게재확정 : 2022년 04월 21일